

e러닝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는 u러닝 시대’

해외 유명 e러닝 기업들의 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e러닝 관련업체·교육기관은 물론 e러닝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e러닝 테크 2004’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담았다.

글 / 신중훈 기자



국내 e러닝 산업이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에 개최된 이번 ‘e러닝 테크 2004’ 세미나는 e러닝 관련 세계적 기술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 e러닝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e러닝 관련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e러닝 전문가인 존 카틀린 스킬소프트 아시아 담당 이사와 마이클 제이콥슨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e러닝 산업의 향후 전망과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스킬소프트의 존 카틀린 이사는 “이제 e러닝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더 이상 생존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학습이 쪼개지고, 여러 지역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킬소프트의 e러닝 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매출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신규사업은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부터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킬소프트는 전세계 60여개국에 지사를 갖고 있는 콘텐츠 개발사로 2004년에만 4,000만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우정보시스템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5,000 종류의 e러닝 코스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e러닝 콘텐츠의 저장소라고 카틀린 이사는 설명했다.

마이클 J. 제이콥슨 고려대학교 교수는 ‘21세기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 e러닝’이라는 주제에서 “21세기 들어 e러

닝의 등장으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기술표준, 상품들이 모두 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배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콥슨 교수는 e러닝의 수준은 1레벨과 2레벨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각 레벨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허원 지노테크 대표(공주대 교수)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구축 환경을 제안했다. “오픈소스 LMS를 한글화하고 학습 관리 기능을 부가한 후 상호 작용 기능이 높은 콘텐츠를 탑재,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e러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소스 LMS의 하나인 dotLRN에 대해 개발경과와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및 특징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하면 굳이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남미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IT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와 e러닝 추이에 대해 설명했다. 문 교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e러닝은 u러닝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IT 839 전략이 완성될 경우 e러닝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모아이넷의 정승균씨는 ‘ASTD 2004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e러닝 주요 토픽 및 트렌드, 그리고 e러닝 주요 컨퍼런스 세션’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트렌드로는 첫째,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e러닝이 정규 학습 형태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 현상과 둘째,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 솔루션의 성과사례 증가로 보였다. 주요 세션 소개에서는 마크 로젠버그 박사의 성과(performance) 향상 지원의 새로운 학습 프레임워크 설계 및 운영방법을 설명했고, 그 사례로 인터넷 학습, 온라인 멘토링 (EPSS 활용) 및 집합교육 형태를 혼합한 아메리칸 혼다사의 블렌디드 러닝 사례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했다. 🇰🇷